

제8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개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저축은행의 당면과제 및 대응전략

개최방식 예금보험공사 Youtube 채널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중계

중계일시 2020년 12월 3일 (목) 14:30 ~ 16:30

주최 예금보험공사

시간	프로그램	
14:30~14:35	환영사	예금보험공사 사장
14:35~14:45	기조연설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red Carns (Principal Advisor)
14:45~15:30	주제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응전략 - 하나금융연구소 정희수 금융산업팀장 2 모바일 전환을 통한 비대면 영업기반 확대 - KB저축은행 허선학 차세대추진TF 부장 3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활용한 선제적 위험 관리방안 - 예금보험공사 최용석 팀장
15:30~15:40	Break time	
15:40~16:20	패널토론	서울대학교 채준 교수(사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김종훈 과장 국민대학교 남재현 교수 저축은행중앙회 최병주 상무
16:20~16:30	질의 및 응답	패널 및 발표자
16:30	폐회	



제8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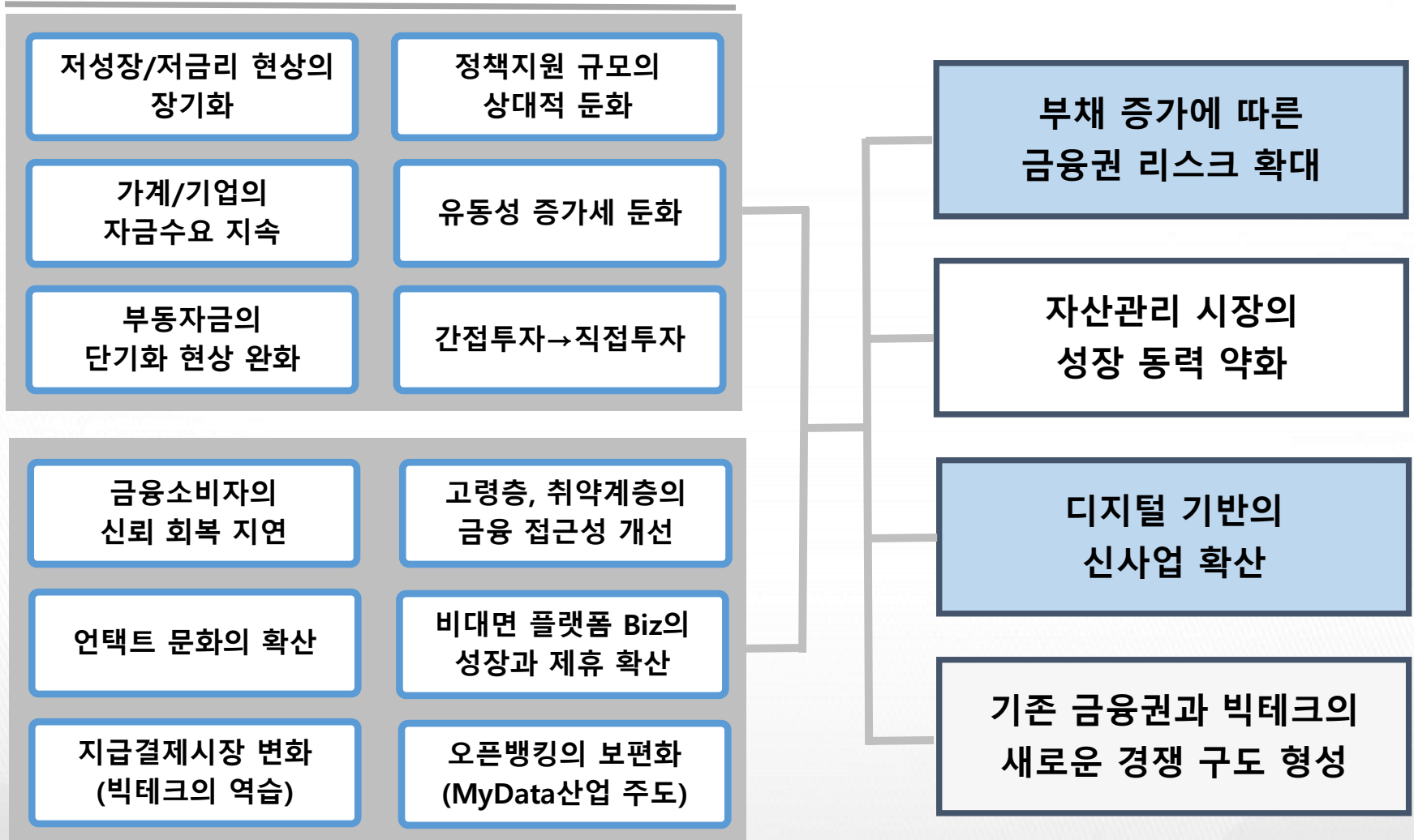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응전략”

'21년 저축은행 전망 및 대응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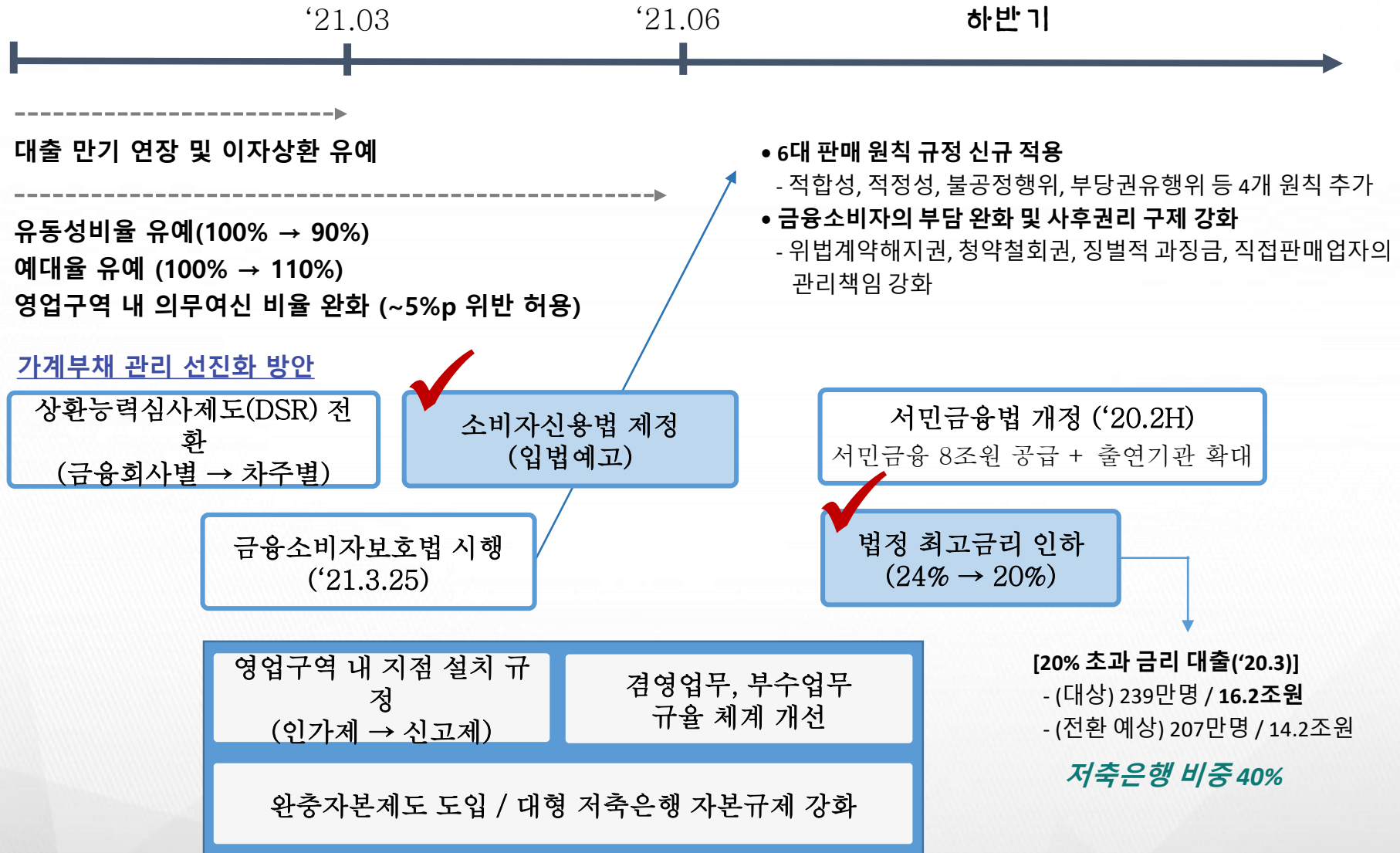
정 희 수 박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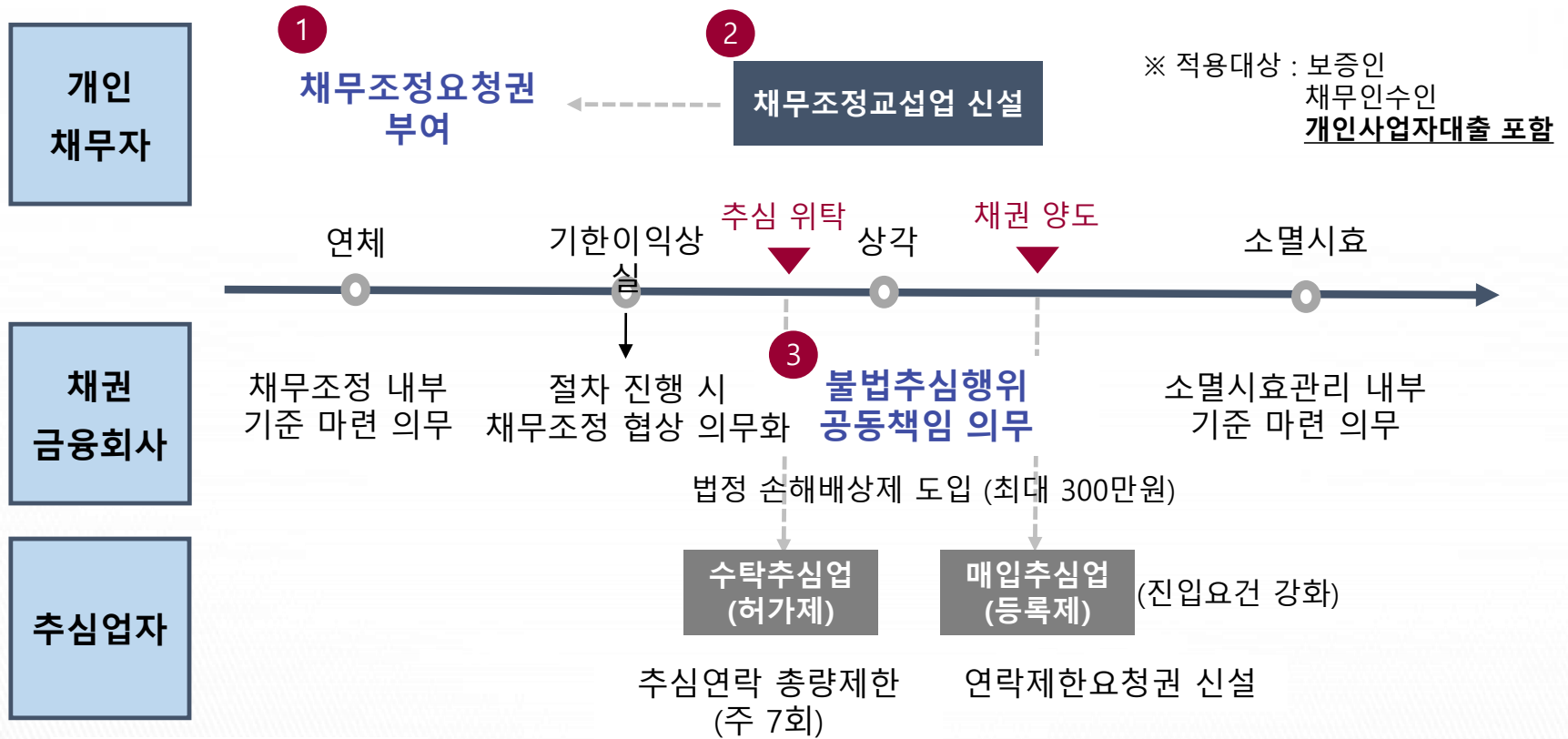
금융환경의 변화



저축은행 관련 규제/제도 변화



[이슈 1] 소비자신용법 제정에 따른 채무조정 상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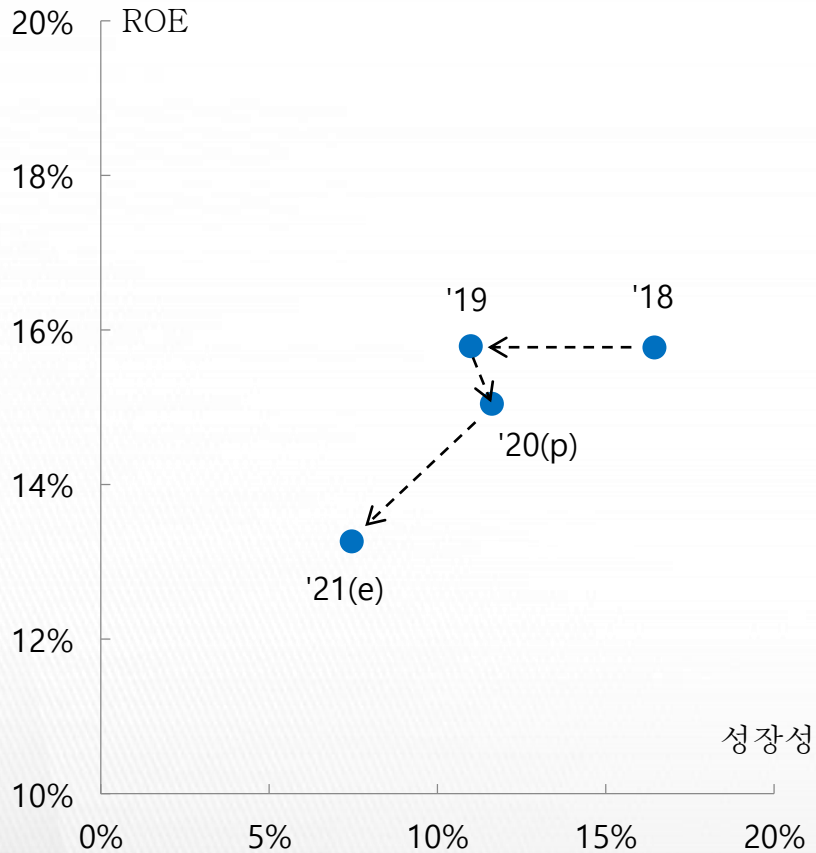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 → Moral hazard 가능성 높음
- 채무조정교섭업 도입으로 변호사 등 전문기관의 난립 → 광보/홍보 등으로 개인채무자의 관심 증가
협의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비용 증가
- 기존 개인채무조정(신용회복, 개인회생 등의 신청 축소 →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역할 가중
- 채권추심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돌발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노출

'21년 저축은행 전망 및 주요 이슈

저축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



주 : 성장성 = 총자산 증가율

주요 이슈

1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대출 성장 제약

- 중소기업/가계신용대출 중심의 대출 확대 지속
- 부실 우려로 대출 태도가 강화되면서 성장 둔화

2 규제 준수 과정에서 수익성 저하

- 고금리 대출 축소, 코로나19로 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 대두

3 지방 저축은행 중심의 주택 관련 PF 대출 확대

- PF 대출 관련 건전성 규제 강화의 영향 미미
- 지방 주택경기 회복으로 관련 PF 시장 성장세 지속

4 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코로나19로 지역별, 규모별 저축은행 간 양극화
- M&A 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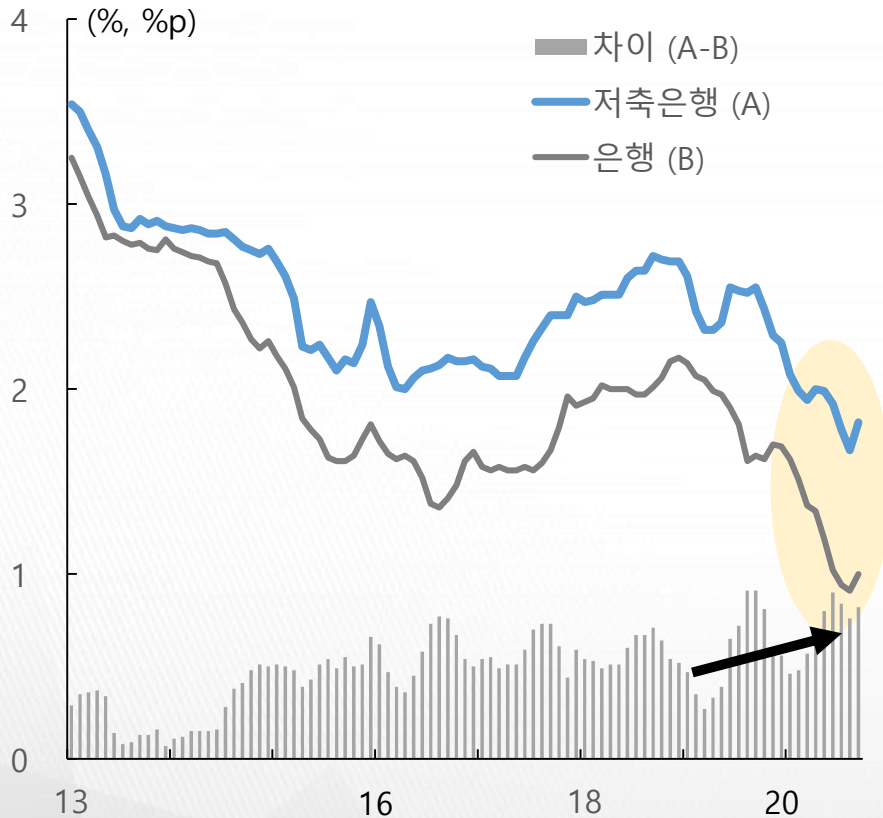
5 비대면, 신사업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추구

- 모바일 플랫폼 등 비대면 영업의 확대 지속
-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신사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

[수신] 은행과의 금리차 유지를 통해 원활한 조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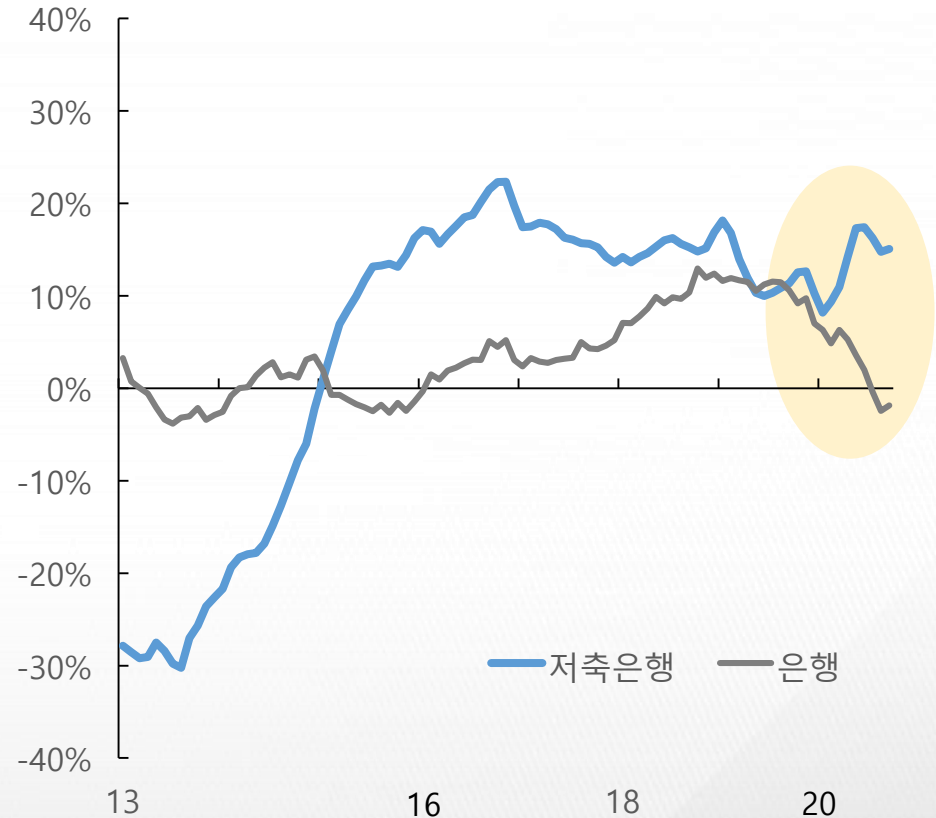
- 은행과의 정기예금 금리차 확대로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 0.27%p('19.3) → 0.82%p('20.9)
- 퇴직연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제공으로 양호한 예금 증가율 지속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



자료 : 한국은행

정기예금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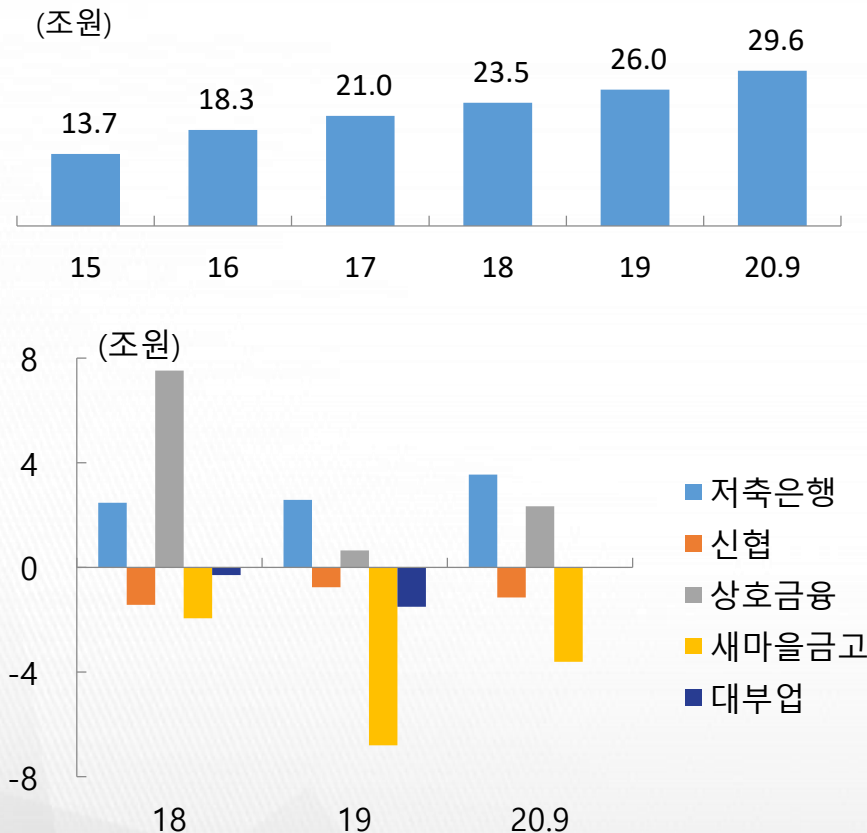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가계 대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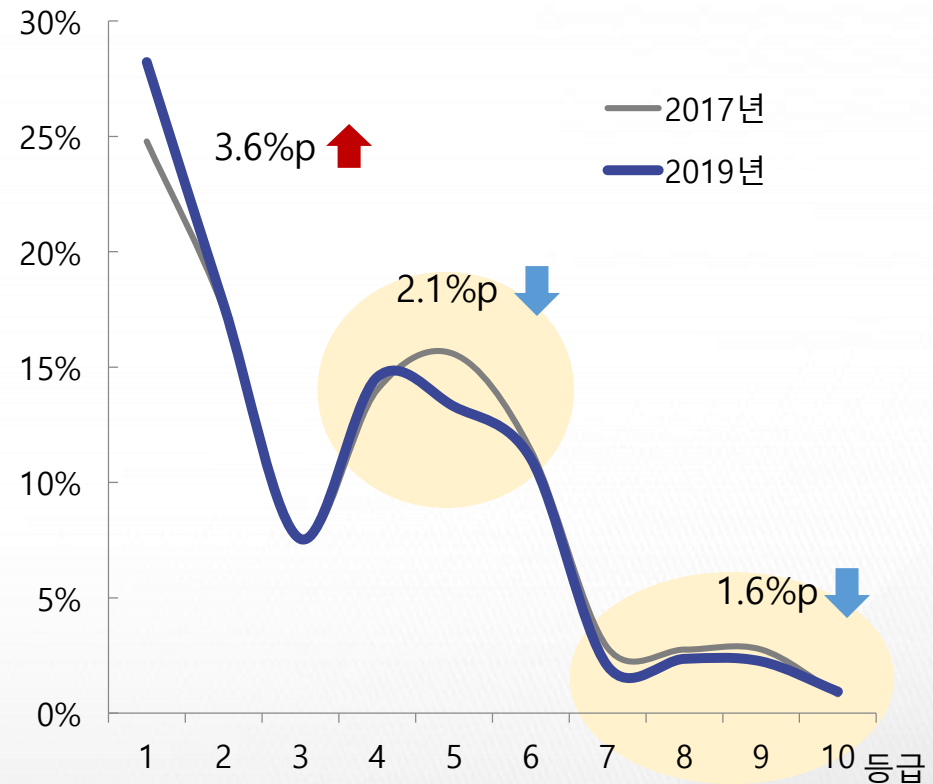
- 은행권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확산 → 다른 제2금융권 대비 증가폭 확대
- 7~10등급 비중의 하락세 지속 ← Positive 정보 급증, 신용평가 점수제 도입 등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감(전년말)



자료 : 한국은행

개인신용등급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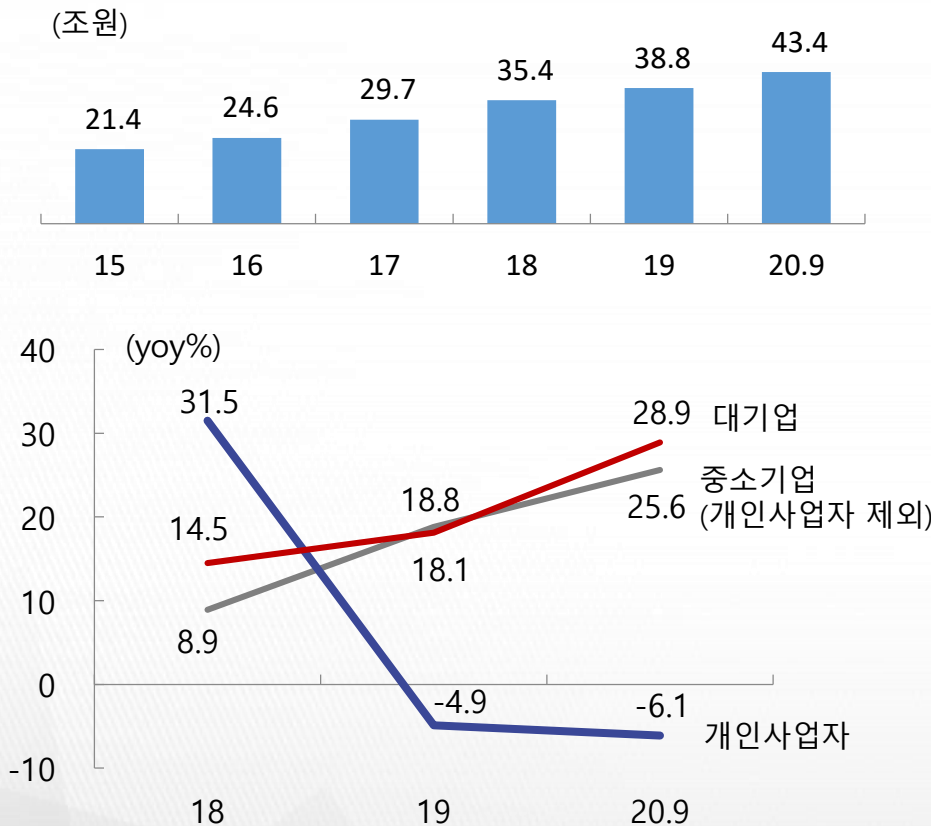


자료 : NICE신용평가

[기업 대출] 대출수요 확대와 정책지원 효과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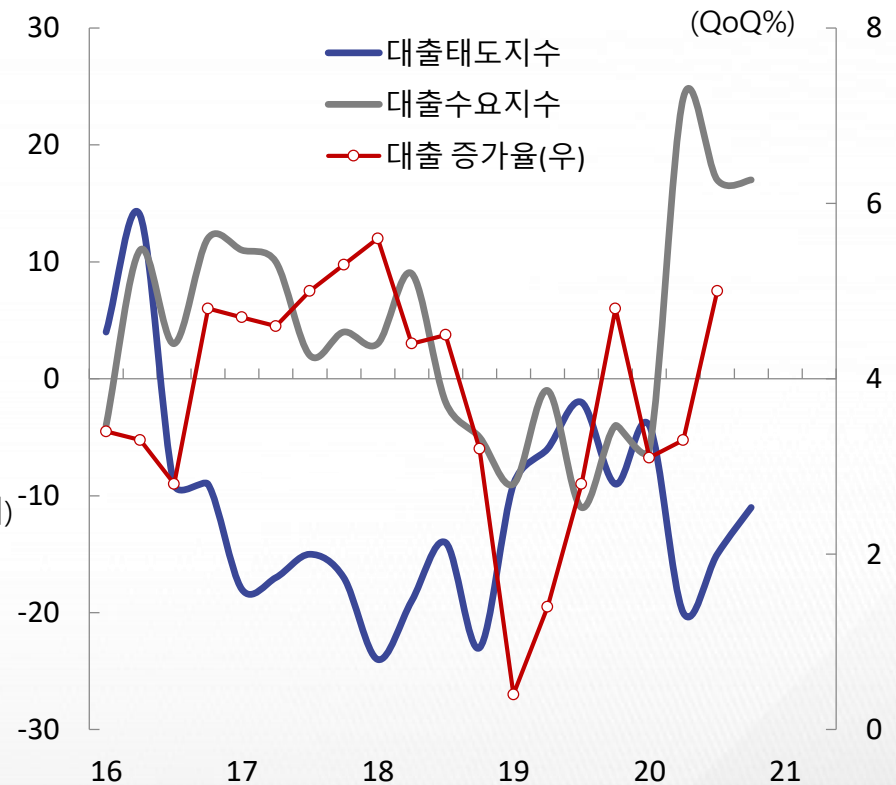
-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업대출의 증가세는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위축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출태도지수는 여전히 (-)인 반면, 대출수요지수는 (+)로 전환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및 증감(전년말)



자료 : 한국은행

대출행태지수 및 기업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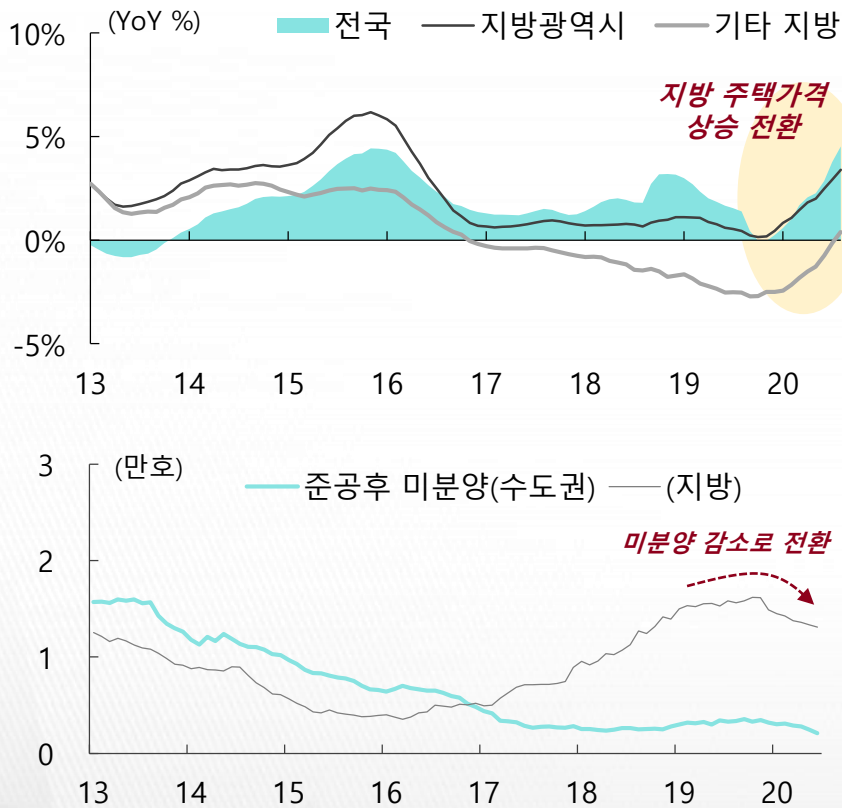
주 : (-)는 대출태도 강화, (+)는 대출태도 완화

자료 : 한국은행, 소상공인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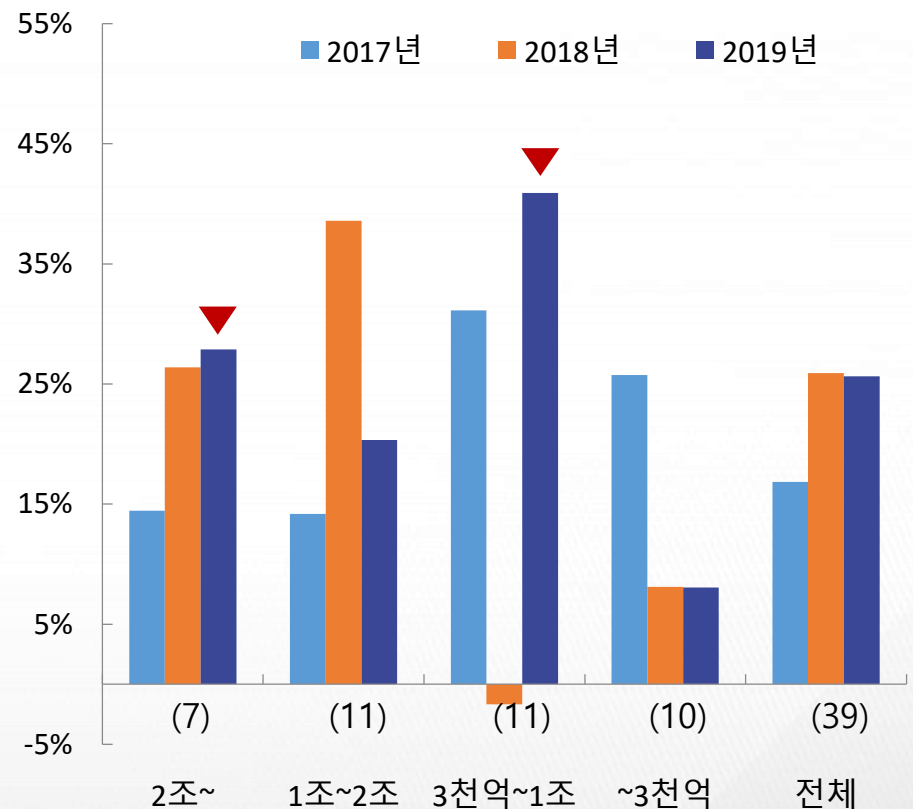
[PF 대출] 중소형 PF 대출의 증가 예상되나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주택가격이 상승 전환, 미분양 감소로 주택경기 회복국면 진입
- 저축은행 PF대출 : 5.5조원('19.6) ← 최근 대형사와 중형사의 적극 확대

지방 주택가격 및 미분양 규모



자산규모별 PF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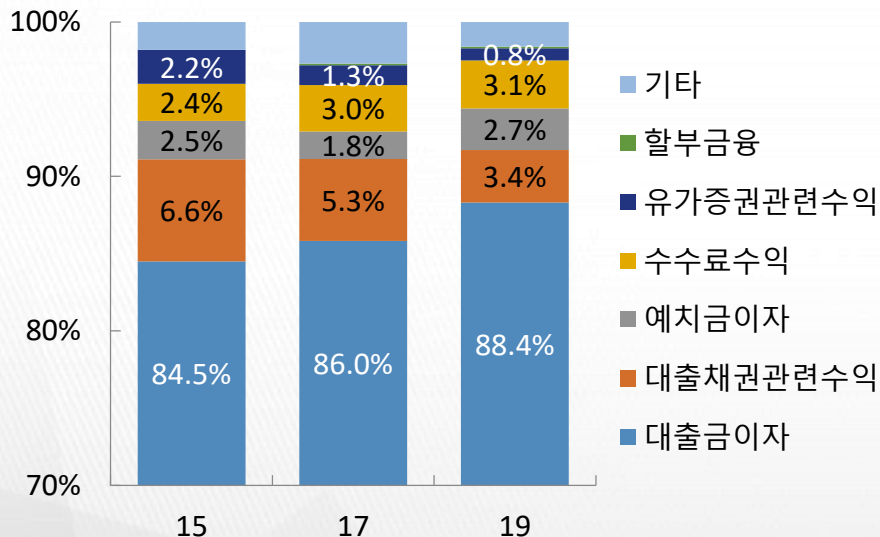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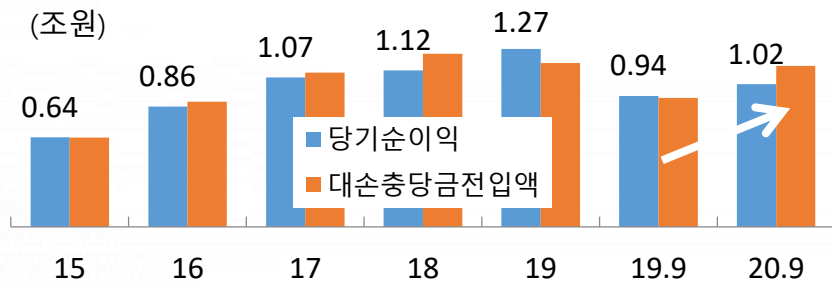
자료 :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 : 공시내용 중 PF 대출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
 ()는 포함된 저축은행 수
 자료 : 금융감독원

[수익성] 규제 준수 과정에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 증대

- 총당금전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의 증가세는 지속 → 단, 이자수익 편중현상 심화
-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 대출 위축, 중금리대출 확대 등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감 증대

당기순이익 및 영업수익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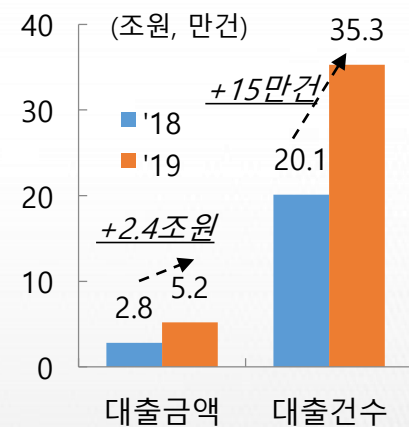
고금리대출 ↓ 중금리대출 ↑, 수익성 저하

- ✓ 신규취급 평균 금리(%) : 22.6('17)→ 19.3('18)→ 18.0('19)
- ✓ 신규취급 고금리대출 비중(%) : 67.9('17)→ 45.2('18)→ 26.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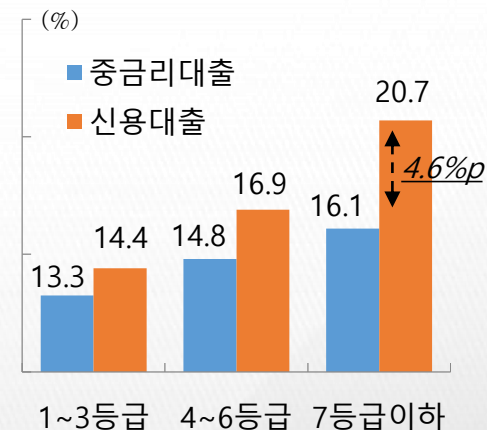
	17	18	19
고금리 대출 잔액	6.7조원	6.4조원	6.4조원
(가계신용대비 비중)	(71.0%)	(56.9%)	(42.5%)

주 : 고금리 대출은 금리 20% 초과인 경우에 해당
자료 : 금융감독원

중금리 대출 (민간+공공)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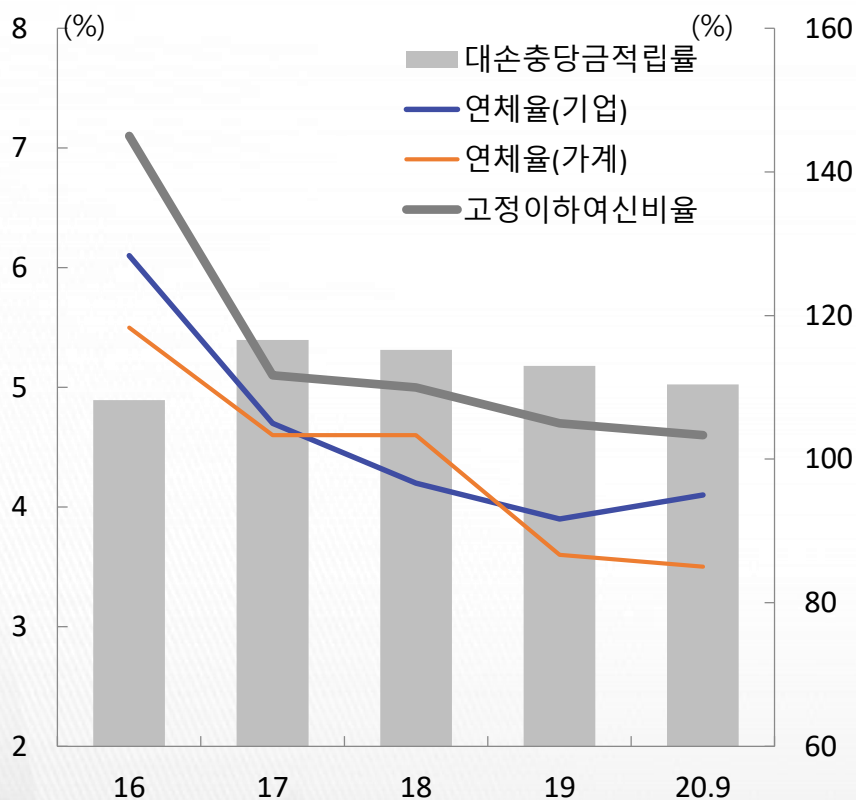


주 : 금리는 단순 평균 금리, 신용대출에는 중금리대출 포함
자료 : 저축은행중앙회

[건전성]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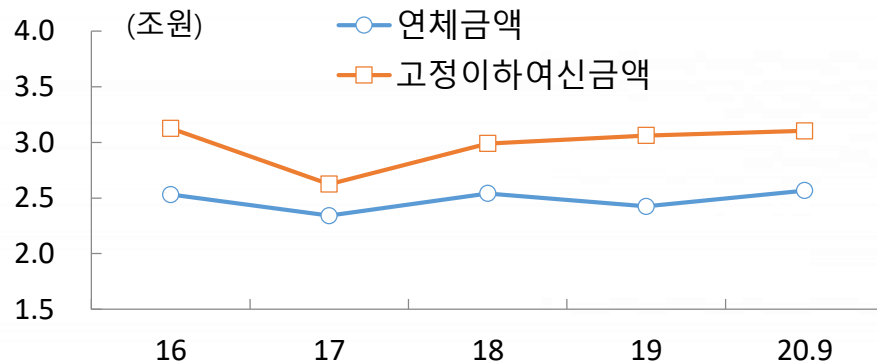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는 양호 → 연체/고정이하여신 규모의 증가에 대한 우려
-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상승세로 전환

주요 건전성 지표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지역별 건전성 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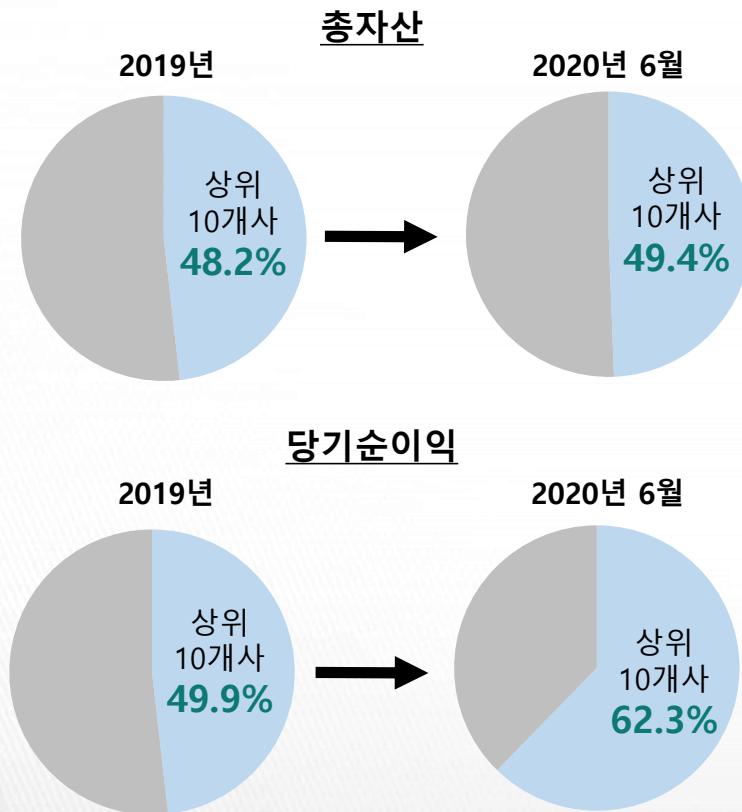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19)	('20.6)	('19)	('20.6)
서울	4.44	4.09	3.14	2.92
인천/경기	4.49	4.36	4.05	4.17
부산/울산/경남	5.12	4.80	4.11	4.30
대전/충남/충북	5.38	6.80	5.95	6.70
대구/경북/강원	6.76	6.34	5.98	6.43
광주/전라/제주	7.84	7.25	6.37	6.38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경쟁구도] M&A를 통한 지방 저축은행의 활성화 유도

- 코로나19 위기로 상위 10개 대형 저축은행 중심의 경쟁구도 고착화
- M&A 규제 완화 시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감 해소 기대

상위 10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주 : 상위10개사는 총자산 기준으로 선정
자료 : 금융감독원

M&A 관련 규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 지방 40%, 수도권 50%
(비대면 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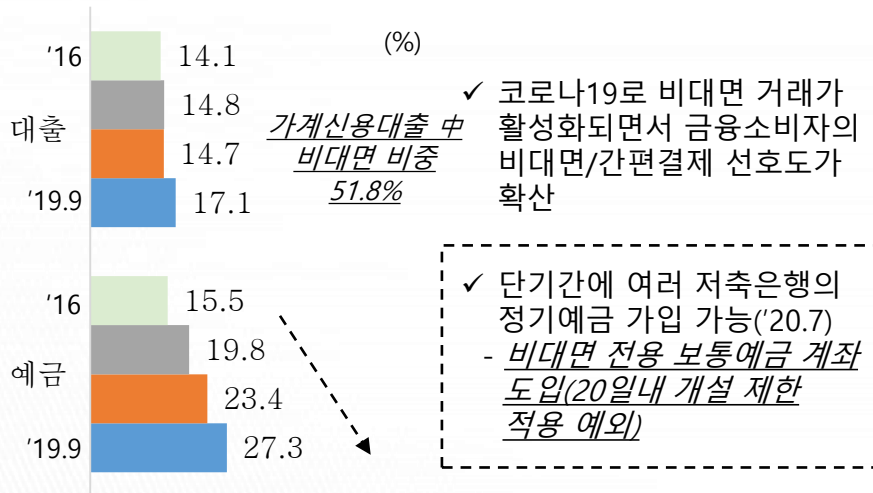
- M&A : ①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제한
②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3개 이상 소유 제한
③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제한

- 상위 대형사는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하는 등 지방 저축은행과의 규제 형평성 존재
→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준수 용이
- 영세 저축은행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우려감 해소에 집중
- M&A 활성화를 통해 지방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
→ 지방은행과 함께 지역금융의 성장 견인

[이슈2] 비대면 채널, 신사업(송금/결제) 확대를 통한 변화 추구

- 비대면 채널의 활용도가 빠르게 확산 → 모바일 App.의 활성화 유도
-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기회 확보

비대면 채널 거래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간편결제, QR코드 결제, 송금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원 다각화 추구

→ 저축은행(전체) 간편결제 이용 건 수 14.4만건

이용금액 244억원('20.7)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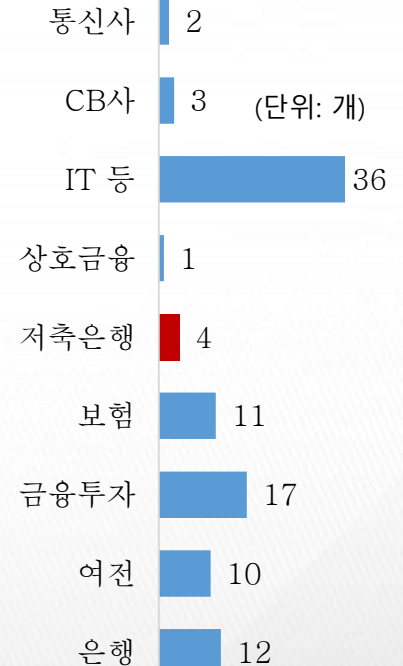
장점

- 저축은행 상품의 노출 확대
 - 상품 접근성 확대
 - 이미지 개선 효과
- 금리 경쟁력을 통한 고객 기반의 확보

단점

- 자체 모바일 App.의 실효성 저하 우려
- 금융결제원의 결제망 사용료인 특별참가금(약 8억원 예상) 비용 발생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20.6)



[대응과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1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 대비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 '21년 6월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 따른 차주별 모니터링 강화와 각종 규제 비율의 정상화
-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및 적정한 충담금 적립 규정 준수

2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가증권 투자 및 부수/겸영 업무의 확대

- 서민금융회사로서 대출업무에 집중할 필요는 있으나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자산포트폴리오 중 유가증권 비중은 3.2%로 낮은 편 → 자체 운용 역량의 확보 또는 외부 제휴
- 최근 부수업무와 겸영업무의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3 중형 저축은행의 육성을 통한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제고

- 대형사 중심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M&A를 통한 중형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 방안 마련
-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해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 제고 (특히, 지방 저축은행의 대형

4 ^{확유도}빅테크, 핀테크 등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채널의 확대

-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사업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App. 개발을 통한 플랫폼 금융 확대 →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



모바일 전환을 통한 **비대면** 영업기반 확대

차세대 추진 TFT 허선헌 부장

 KB저축은행

2020.8.19 (금) _한국금융

금융권도 뒤흔쳤다...카드 · 저축은행 콜센터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KB저축은행 '코로나 섯다운'에도 정상운영...비결은 '디지털'

2020.10.9 (금) _한국경제신문



저축은행에서 콜센터 직원없이
정상운영 되는게 가능할까?

대출 신규시 본인확인, 재직, 소득 등
확인사항이 한 두개가 아닌데~~



100% 비대면 프로세스 를 통해
24 * 365 여·수신 실행 이 가능한
KB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해답**입니다

키워주고 + 위해주다



Kind + Wiress





인증수단 다양화

- 로그인 인증수단에 KB모바일인증서, FaceID, 지문, 패턴, PIN, 목소리
- 이체 인증수단에 FaceID, 지문, 목소리
- 업권최초 휴대폰 본인인증 간소화 (비점유인증-SMS인증절차 생략)

비대면 여/수신 전용상품

- 비대면 전용 여·수신 상품 제공 (우대금리 및 한도제공)
- 웹<->앱 교차거래 가능하며, 모든단계 “이어가기 서비스” 제공으로 Seamless 실현
- Mobile Web 전용상품 출시
- 수신+여신 동시가입으로 고객편의제공
-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디지털화

1

2

3

KB금융그룹 계열사 서비스

- 업권최초 단독 카드사 제휴 체크카드 모바일 발급시행
- 은행, 카드, 증권, 손보, 생명, 차차차, 부동산 Liiv on, 리브메이트 등 계열사 상품정보, 거래정보 API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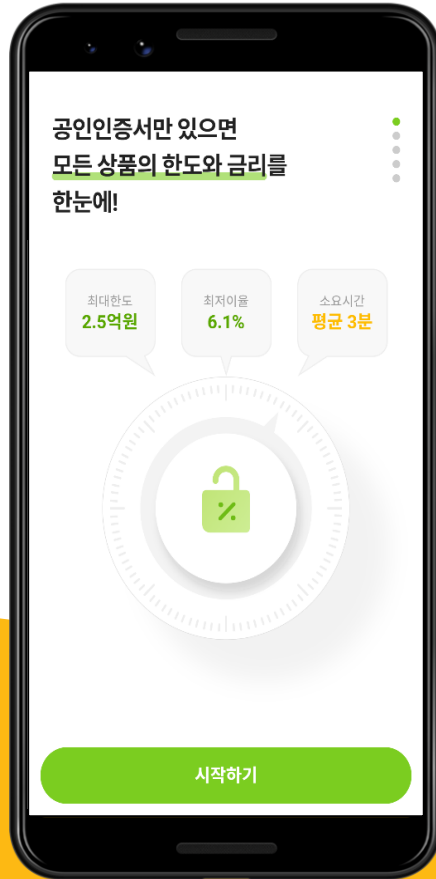
4

고객 편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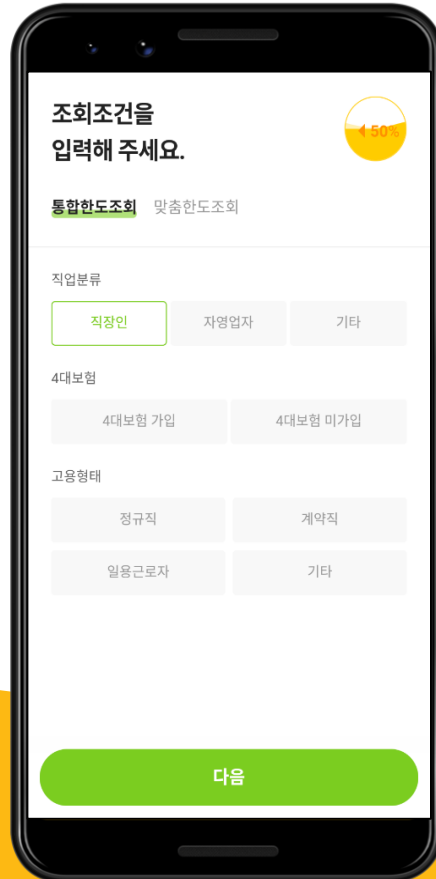
- Kiwi 멤버십
- 경조금 보내기
- 더치페이
- 모임통장
- 스마트폰 ATM
- 챗봇
- (비FIDO방식) 목소리 banking
- 모바일증명서 발급(PKI기반 전자서명)
- 신상품 Gamification 제공



04 비대면 대출 서비스



🔍 “CSS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스크래핑” 서비스로
대출서류 제출없이
전 상품 한도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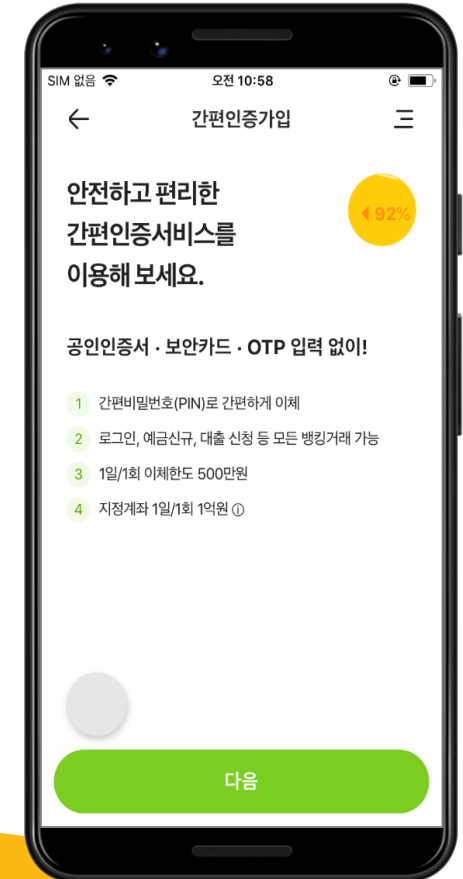


🔍 내게 맞는 조건대로
“DIY” 설계하면
딱 맞는 대출 추천

🔍 업권최초
“저축은행 전환대출” 전면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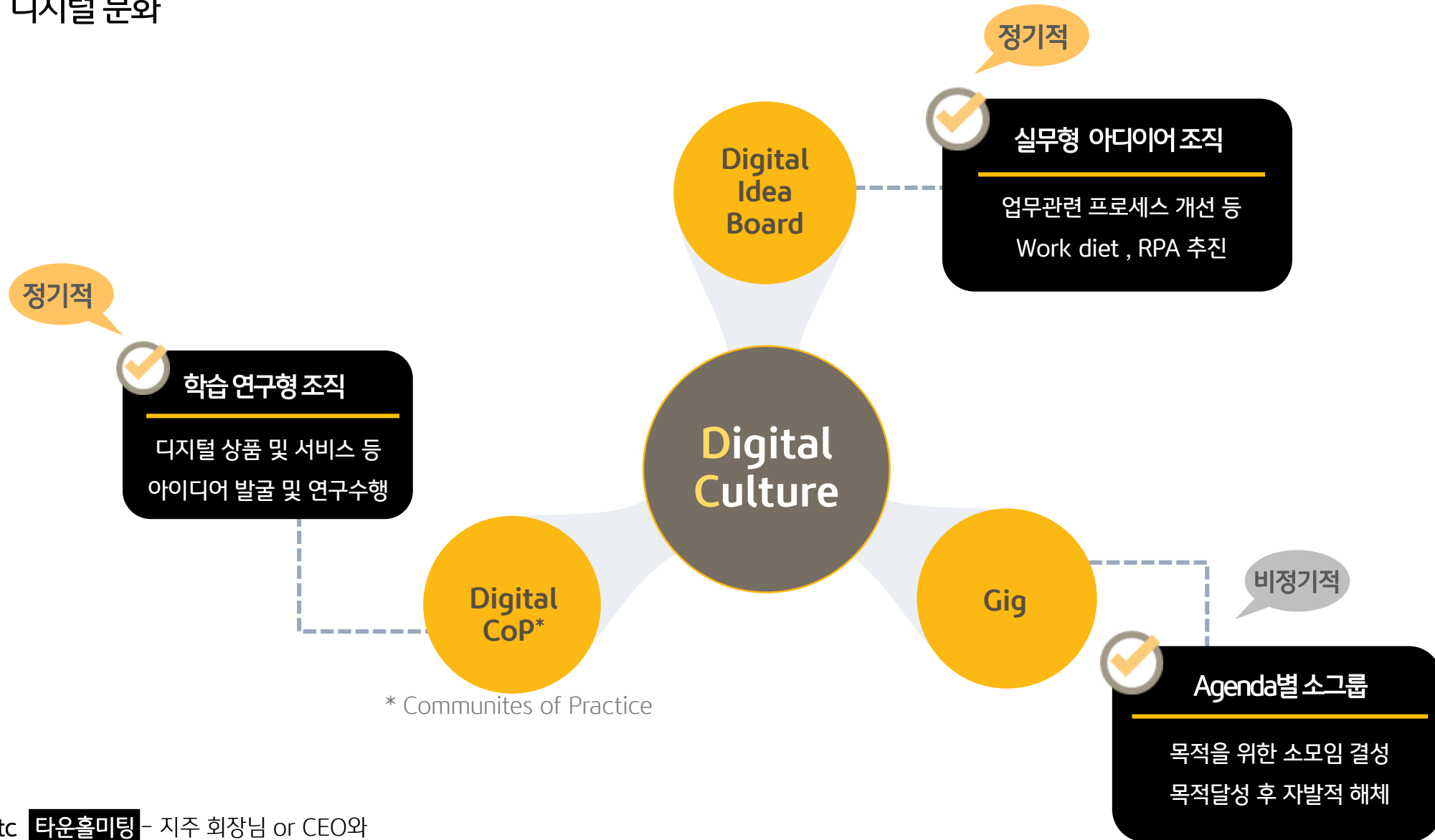


🔍 업권최초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으로
24*365 대출 실행가능
(App/Web 서비스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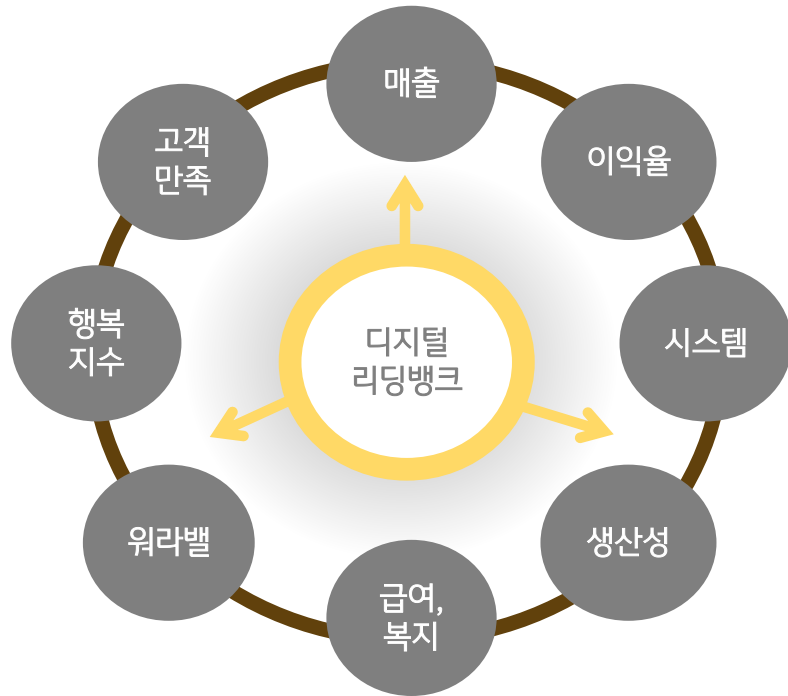
🔍 간편인증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약정으로
APP다운로드 없이도
WEB에서 약정가능

05 디지털 문화



Etc **타운홀미팅** - 지주 회장님 or CEO와
You Tube를 통한 비대면 토론 (연1~2회)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추진중..



KB저축은행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 ① 중금리 시장에 특성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구현**
- ② 디지털 고객 경험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③ **Open Innovation** 을 통한 신규 디지털 사업 영역 발굴
- ④ 디지털 조직, 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
- ⑤ 디지털 전환 전략 실행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IT 인프라 구축**

“똑똑한 기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찾으려면
실제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된다.”

존 마코프 <축복의 기계 Machines of Loving Grace>



message

고객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Digital Culture



Thank You

Q&A

KB저축은행 차세대TFT 허선헌 부장
prechrist@kbfg.com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

豫其懲而毖後患

예 기 징 이 비 후 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대비한다.





제8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

저축은행 부실원인·대응 및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방안

2020. 12. 3.

예금보험공사
최용석 팀장

Contents

I.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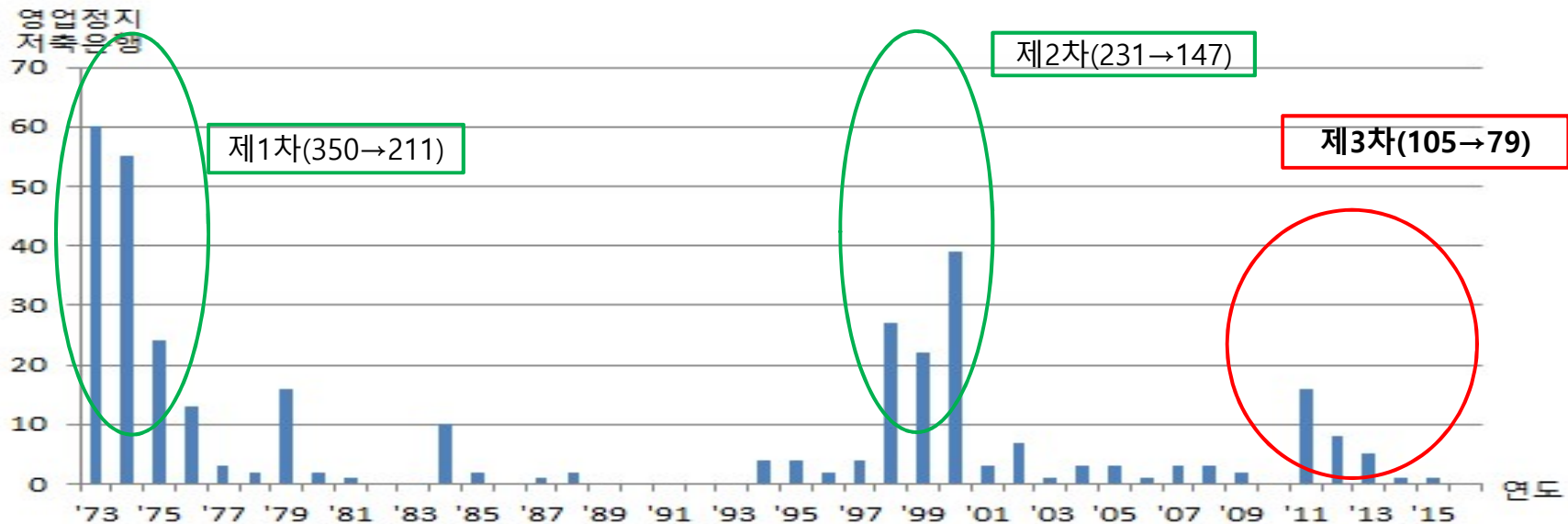
II.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감독당국의 정책적 대응

III.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방안

I. 개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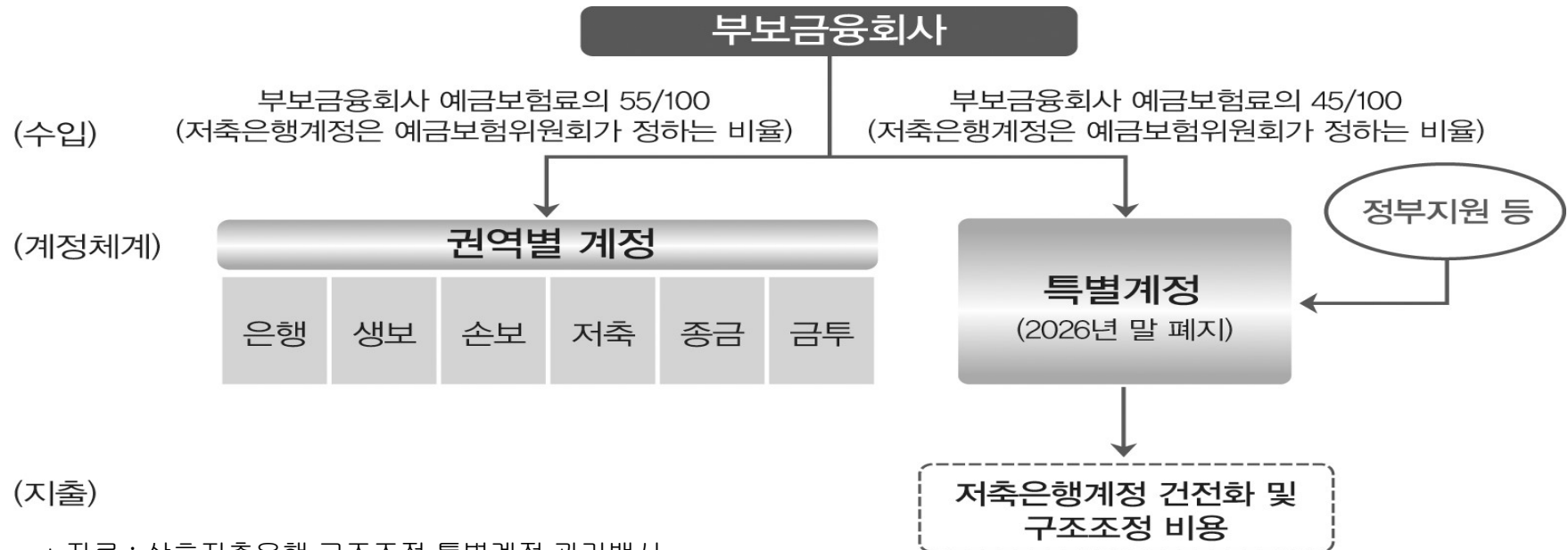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시기	· 1973~1975년 (’72년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직후)	· 1998~2000년 (’97년 외환 위기 직후)	· 2011~2015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특징	· 私금융업체 양성화하기 위해 先설립인가 후 자격요건 미달. 경영부실 저축은행 정리	· ’97년 외환위기로 여신부실 심화 · 영업부진에 따른 부실 가속화	·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PF대출 부실 · 내부통제 미비 등에 따른 부실 심화



* 1998년 이전 자료 : 상호신용금고연합회(1993), 「상호신용금고 20년사」 및 신용관리기금(1998)

특별계정 설치·운영

- '11년 이후 저축은행 부실 대응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26년까지 설치('11.4월).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조달
 - '20년 현재까지 27조원 지원, 13조원 회수 → 14조원 적자
 - 적자해소를 위해 다른 업권도 부담(예금보험료 45%, 연간 7천억원 수준)
- ※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연간 2천억원 미만에 불과함



* 자료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II.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축은행 부실원인

부실 원인

1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소유 집중도 高
-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 내부통제 등 경영감시 미흡

2 대형화 및 계열화

- 저축은행간 M&A 허용
- 8·8클럽 : 여신한도 완화
- 자산 1조원 이상, 계열 증가

부실원인

- 저금리 기조
- 부동산 경기 호황
- PF등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

3 高위험여신 편중

- 8·8클럽, M&A 허용 등
- PF대출한도 등 법제화 지연
- 검사 방식 완화 등

4 감독 정책

① 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구 분	내 용
① 소유 집중도 高	· 자산 1조원 이상 대주주 지분율 73%, 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91% 상회 → 대주주 영향력 절대적 · 대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高
② 내부통제 등 경영감시 미흡	· 중요 대출에 대한 영업·심사·리스크관리·사후관리 의사결정조직 미분리 · 내부통제기능(이사회, 주요 위원회 등) 취약
③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	· (불법대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부당대출) 채무상환능력 심사 소홀, 담보 미취득 등 · (기타) 횡령, 회계분식 등

1 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부실화된
저축은행

30개 분석

- 대주주 등 불법신용공여, 대출 부당취급 등 위규행위 빈발(비중 약 30%)
- 소유·경영 분리 미흡 → 高위험 추구 및 불법대출 비중 高
- 사외이사 비중 高 → 불법대출 비중 低(경영감시 기능 작동)
- 김민혁(2019) : 과거 부실원인을 이용한 '16~'19년 자료 실증분석
 - 대주주 지분율 高, 대표이사 겸직 → 위험추구성향(고위험대출비중) 高
 - 사외이사 비중 高 → 위험추구성향 低

'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불법·부당대출 비중(부실책임조사 자료 등 분석)

부실 저축 은행	불법·부당대출 등 비중 (단위 : %)							
	불법대출			부당대출			기타	합계
	대주주 대출	한도 초과	소계	PF대출	기타 대출	소계		
30개 평균	8.4	7.0	15.4	2.4	11.0	13.4	1.2	30.1

* 자료 : 예금보험공사

1 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위법행위 사 례

- 임직원 관련자 명의 차용 → SPC 불법대출 →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 손실 발생 → 회계분식, BIS비율 조작
- 연체 중이거나 부실화된 소액신용대출 수만 여건을 전산원장 조작
→ 만기를 연장하고 정상 대출로 분류
- 이중 대출채권 서류 작성을 통해 불법사실의 조직적 은폐
-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불법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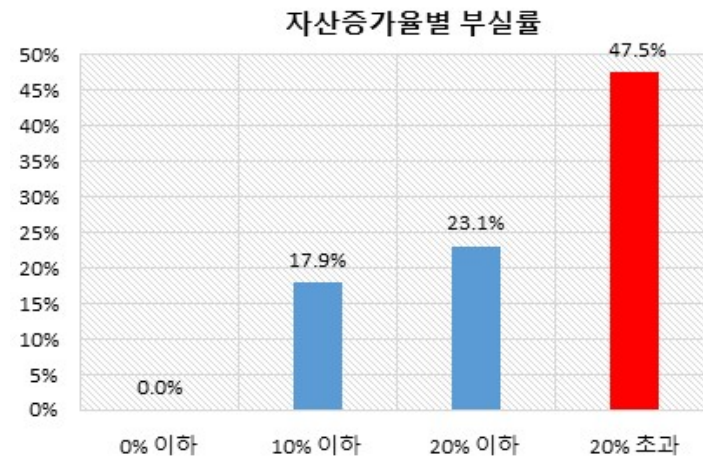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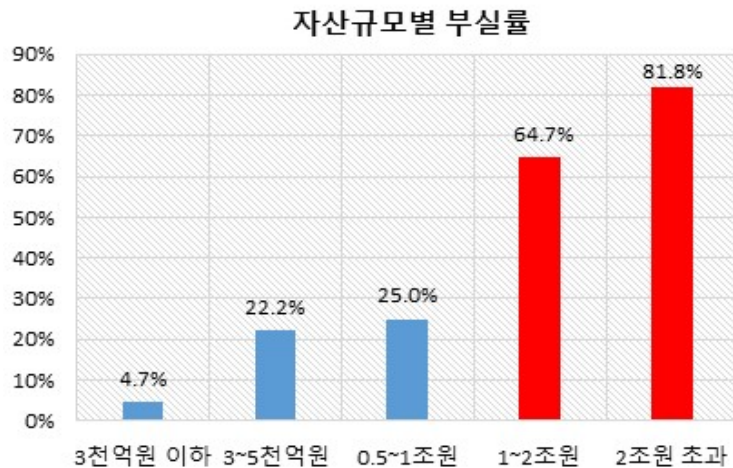
2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계열화

구 분	내 용
① 저축은행간 M&A 허용	• '05년말 기준 PCA 대상 저축은행 10개 → 예보기금 투입없이 경영건전화를 위해서는 M&A 활성화 필요. • '05.12, 감독규정 개정
② 8·8클럽 : 여신한도 완화	• 2000년대 중반 업권 전반의 부실 심화 → 규제 차등화 우량저축은행(건전성 기준 강화, 영업상 인센티브) • '06.8, 저축은행중앙회의 건의(발전방안 : 동일인 여신한도 중복규제 폐지 등) • 요건 충족시 동일인 여신한도(법인 80억원) 제한없이 자기자본의 20%까지 취급

②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계열화

구 분	내 용
③ 자산 1조원 이상, 계열 증가	•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 급증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 '05년 6개 → '10년 29개 - 계열저축은행 : 13개 → 31개 - 계열저축은행 총자산이 업권 전체의 57%, 상위 5대 계열저축은행 대출시장 점유율 44%

● 자산규모가 크고 자산의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의 부실률이 현저히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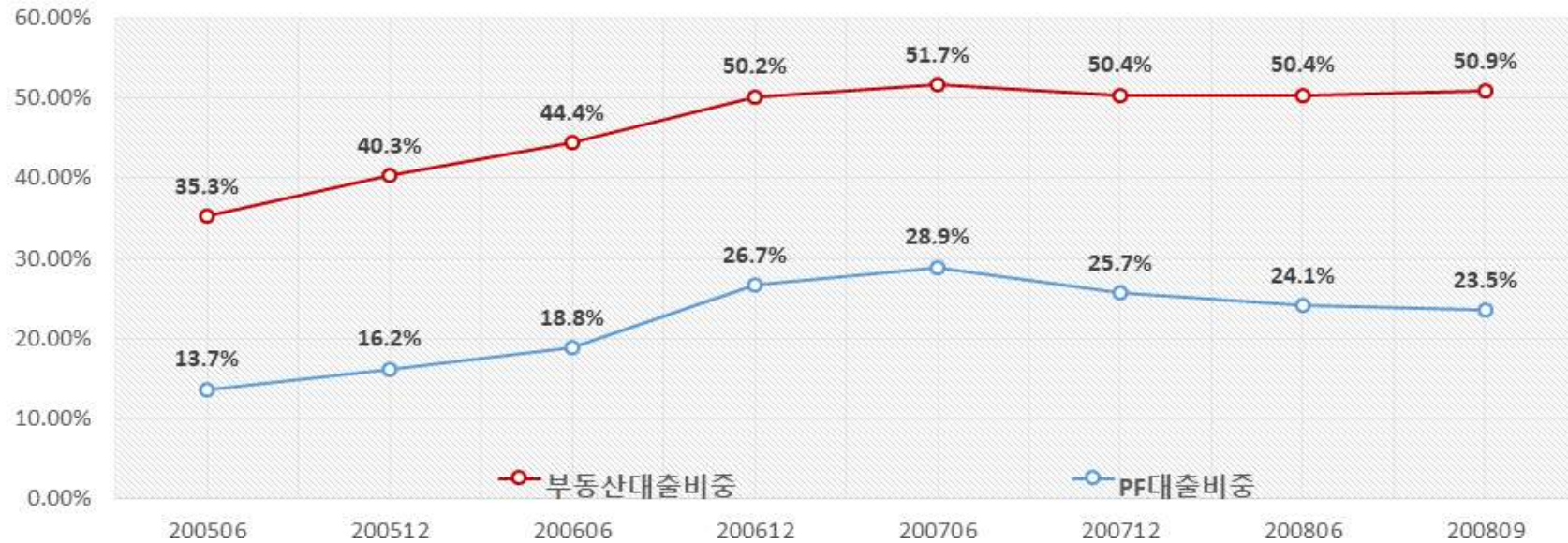


*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9)

3 고위험 여신 편중

구 분	내 용
① 저금리 기조	• 외환위기 극복 후 2000년대 중반부터 저금리 기조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대출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국내 금융시장 신용 경색
② 부동산 경기 호황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전년비 '05년 4%, '06년 11% •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급등 →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수주 급감, 미분양 주택 급증
③ PF등 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	• 저축은행업권의 외형확장 경영전략 • PF대출 등 부동산 대출 비중 꾸준히 상승 → PF사업장 사업성 악화,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화 가속

3 고위험 여신 편중



〈표〉 부동산 및 PF 관련 대출의 비중 및 증가율

구 분	PF 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10.6)	증가율('08.6~'10.6)	비중('10.6)	증가율('08.6~'10.6)
정 상	13.3%	△13.3%	40.4%	0.1%
부 실	24.4%	8.7%	54.4%	16%

* 자료 : 예금보험공사(2019)

4 감독 정책

구 분	내 용
① 8·8클럽, M&A 허용	• 요건 유지를 위해 BIS비율 조작 • 대출한도 확대에 따른 고위험 PF대출 급증 유발 • 저축은행 M&A 허용 → 계열화, 대형화 → 부실화 가능성 高
② 법제화 지연 (PF대출한도 등)	• 30% Rule(지도) : PF대출 취급액을 총 대출의 30% 제한 • '07.10월 개정안 : PF대출한도 규제, 임원자격요건 강화, 저축은행 주식취득목적 대출 금지 등 • '10.9월 : 법령, 감독규정 개정 → PF대출한도 등 규정
③ 검사방식·제재 완화	• 검사 완화 : 현장검사 축소, 서면 중심 검사 • 제재 미흡 : 감독·검사 업무 통합(금융회사 부담 완화) 업무위반 제재 건수 대폭 축소('08~'10년)

부산저축은행 사례

1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대주주 자기대출(315억원)
- SPC 불법대출 (4조 6천억원)
- 2조원 규모 분식회계 등
- 대주주 등 징역형

2 대형화 및 계열화

- 부산2 등 5개 계열 소유
- 자산 규모 1위 (약 10조원)

부실원인

- PF대출 비중 67.1%
-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85.5%

3 고위험여신 편중

- 부실회계감사
- 검사/감독 과정의 비리
- 관련자 처벌

4 감독 정책

< 감독당국의 정책적 대응 : 대규모 부실화 前 >

1 PF대출 위험요인 인지

- 보도자료 배포
- 규정 개정 의견 개진
- PF대출 현장 조사 실시

2 PF대출 관련 제도개선

- 30% Rule, 총당금 적립 강화
- PF대출한도(20%) 등 규정화
-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시스템

정책적 대응

- 주식취득 사전규제 강화
- 사외이사 제도 강화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3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 거액신용공여한도 신설
- 유동성 비율 도입
- PCA 기준 강화 등

4 경영건전성 제고 등

< 감독당국의 정책적 대응 : 대규모 부실화 이후 >

1 일괄 경영진단 실시

- 예보/금감원/회계법인
- 85개 저축은행
-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등

2 경영정상화 종합 대책

- 대주주 불법행위시 직접검사
- 8·8클럽 폐지, 여심위 설치
- 공시 강화, 후순위채 판매제한

정책적 대응

- 리스크감시모형 개선(변수 등)
- Stress Test 모형 개발
- 유관기관 공동검사 워크숍 등

3 리스크감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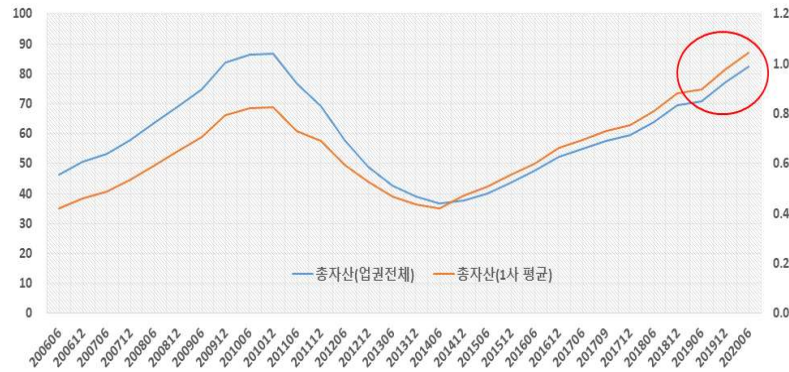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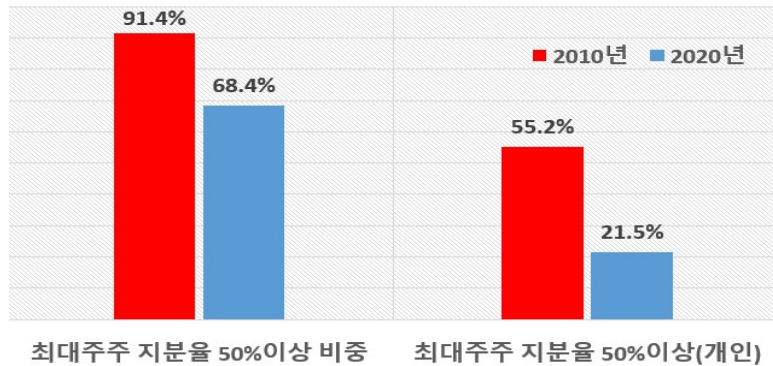
- 공동검사 : 계열저축은행, 총자산 2조원 이상, 매년
- 단독조사 : PCA + 2% 미만

4 현장 감시 기능 확대

III.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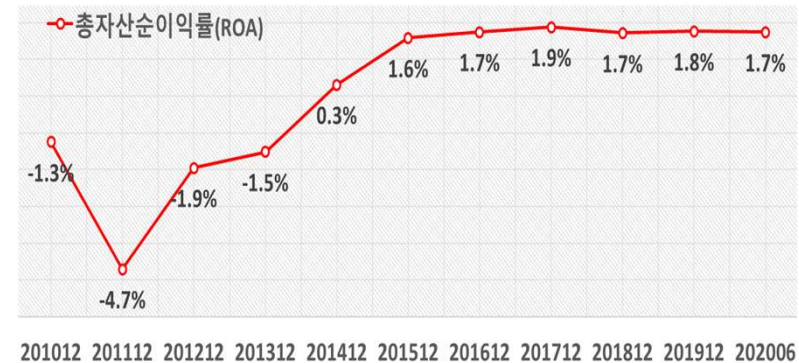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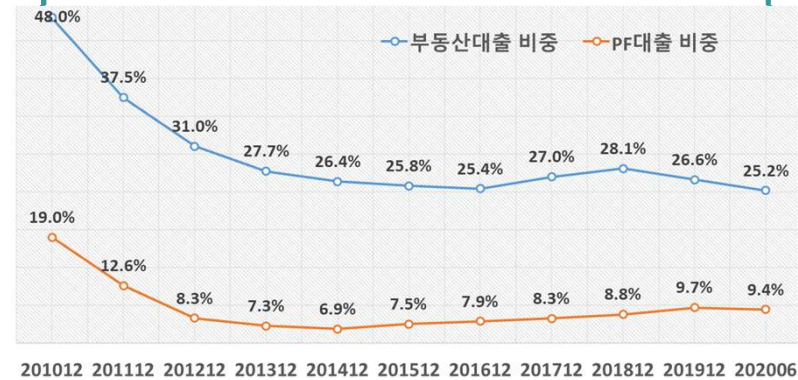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업권 동향(업권 전체)

1 소유 집중도



3 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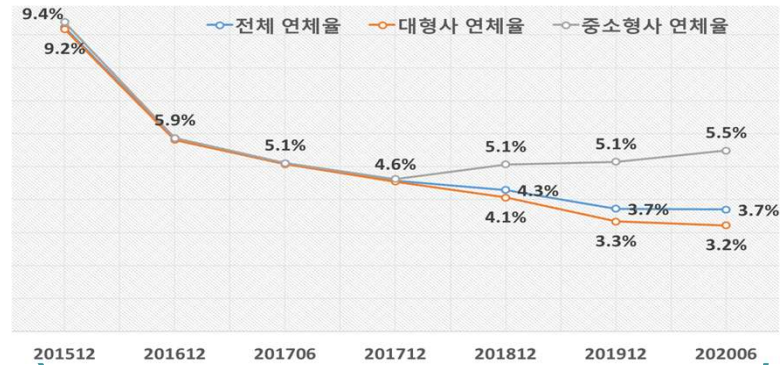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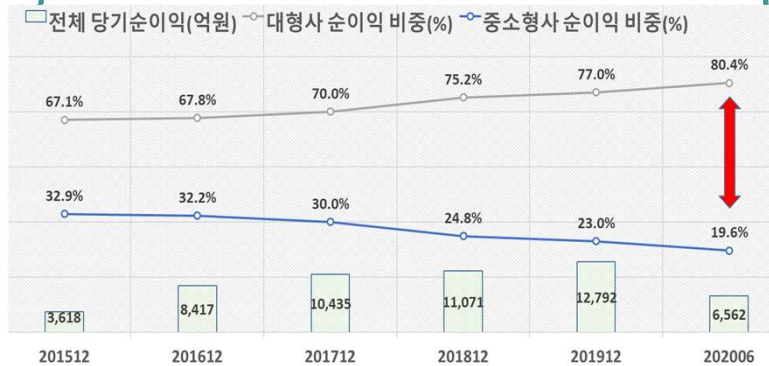
2 대출 편중



4 주요 경영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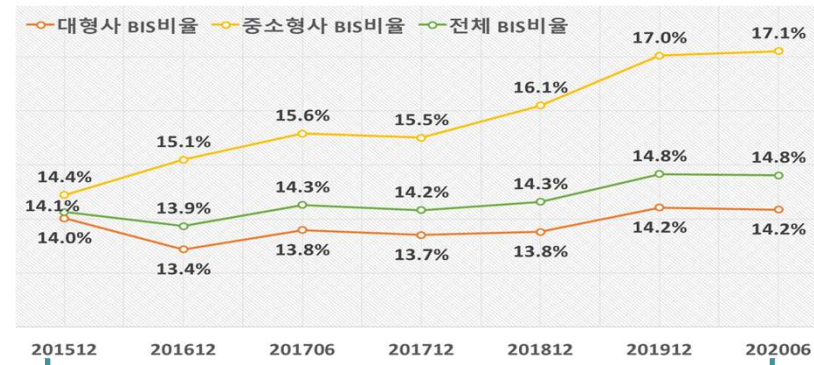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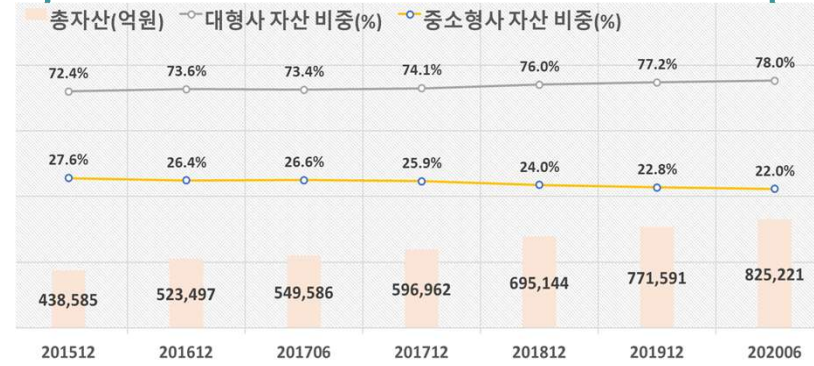
저축은행업권의 양극화(대형사 vs 중소형사)

1 수익성



3 건전성

2 자산 규모



4 BIS비율

새로운 위험요인

1 코로나19 바이러스

- Pandemic에 따른 Credit Risk 및 Operational Risk 증가

2 저금리 기조 장기화

- 자산 버블 → 위험 축적, 고위험·고수익 자산 추구 경향 → 리스크 증가
- 유가증권 연계 대출(주식담보대출, CB·BW 등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

3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의 등장 및 업권간 경계 불분명에 따른 경쟁 심화

4 초대형화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저축은행 2개, 최대 규모 저축은행은 약 11조원



시장 충격 → 기금 손실 증가

* 79개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28개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 방안

1 정책 당국

- 대주주 자격 심사 강화
- 대형사 IFRS 도입 의무화
- 불법행위 제재 강화

2 예보 : 상시감시 강화

- 금융정책·시장동향 분석 강화
- 리스크감시 모형 지속 개선
- 위험 요인·저축은행 모니터링

위험관리 강화 방안

- Management · 내부통제 점검
- 위험요인의 구체적 확인
- 코로나 : On/Off-site 검사 병행

3 예보 : 현장점검 강화

- 내부통제 조직의 실질적 운영
- 급속한 자산성장 vs 내실
-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관리

4 저축은행 업권

< 참고 : 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관련 교훈 >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 1930년대 대공황 직후,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
- 예금보험한도 1인당 25만달러(대공황 직후 5천달러에서 확대)



2008년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

- (금융위기 촉발원인) 저금리 기조하 고위험자산수요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확대 → MBS, CDS 등 구조화 상품 대량 판매
- (금융위기 → 은행위기) 주택시장 버블 붕괴 → 모기지론 · MBS 등 상품가격 폭락 →
금융시장 불안 증대 → 대규모 금융위기 확산 → 은행위험으로 전이
- '08~'13년 사이, 500여개 부보은행이 부실화 → 기금에 730억 달러의 손실 초래*

* '08.3월 528억 달러에서 '09년.12월 (-)209억으로 급감

- FDIC가 2017년 발간한 정책백서로 2008년 금융 위기 원인, 대응 및 교훈을 정리

1 호황기는 잠재된 리스크를 감출 수 있다

- 리스크 요인이 있어도 우량한 재무상태로 인해 높은 검사 등급을 부여하는 경향 존재 (유의)

2 과거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과거의 위기 원인 외에 새로운 이슈(사이버 보안, 저금리 환경 등)를 지속 관찰

3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중요하다

- 은행이 고수익 달성을 위해 위험 추구 시, 감독당국은 내재된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

4 업무보고서 분석은 리스크 발견에 큰 도움이 된다

- 금융회사 대출 집중도, 자산 증가율, 자금조달구조 등 파악시 업무보고서가 가장 적합

5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빛을 발한다

- 은행 이사회의 전략적 판단 및 가치기반 대출 시행 등은 리스크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음

6 임점검사를 통해서만 금융회사 주요 리스크를 평가 할 수 있다

-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요소(경영능력, 지배구조 등)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 리스크 주요 지표 및 내부통제의 신뢰성을 점검하도록 설계된 임점 검사가 중요

7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미비할 경우 감독당국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감독당국은 시정조치 시행 및 검사등급 하향 조정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시행

8 신설은행 및 대형은행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신설) 초기 3년간 연례 검사 실시, 기 제출한 경영계획 준수 여부 점검
(대형) 임점 검사 확대 시행, Stress Test 시행, 서면 심층 분석 등

9 은행의 효율적 감독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 은행 감독 및 검사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 감독 전략 발전, 검사 인력 양성 등

참고문헌

제 목	저 자	연 도
상호저축은행 백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2012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경서·정찬식(한국증권학회지)	2015
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 및 부실예고지표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2016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	김학건·박광우·오승곤(금융안정연구)	2017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예금자규율에 관한 연구	김민혁(기업경영연구)	2018
저축은행 부실유형 분석을 통한 리스크감시 정교화방안	예금보험공사	2019
Crisis and Response : An FDIC history, 2008-2013	FDIC	2017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